

도전 · 신뢰 · 창조로 그라비아업계 발전 제시

친환경 저심도 롤로 원가절감 기여



김성원

(주)한두패키지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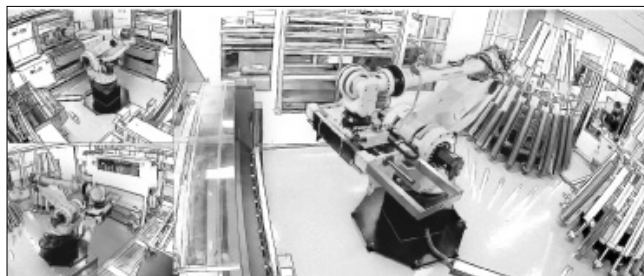
인쇄에 있어서 기본요소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동판제작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산업이었으며, 유저들도 기술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동판제작산업이 인쇄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력 향상과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최근 New-FX(전공정 무인 자동화) 증설을 하고 오픈행사를 가진 (주)한두패키지(대표이사 김성원)가 이러한 기술진보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한두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에는 김성원 사장의 과감한 도전에서 비롯된다. 역경을 두려워 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도전의지로 하루에 1세트씩 시제품을 제작하여 테스트를 통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에 노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접목하여 변화에



▲ 친환경 저심도 롤

HANDOO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신과 실천을 접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을 유지시키는데 든든한 힘이 되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 1986년 10월 성명기획으로 창업한 이 회사는 1998년에 융덕시스템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후 2001년 (주)상보그라

테크를 인수하여 (주)한두패키지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제 판설비를 증설하고 환경 사업장으로 변신하면서 안정을 다지게 되었다.

유망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인정받으면서 인쇄용 실린더 특허, 금속인쇄용 셀셀게 특허 등 기술 기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쇄 제판업계의 기술리더로 나서기 시작했다.

2007년 부터는 RFID,

TSP, FPCB 패넬등의 E-Printing을 개발하여 실용화 하였고 이후 삼성전기와 공동 연구로 금속인쇄 개발을 성공, 전자인쇄용 동판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한두패키지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른 제판업체와 다르게 몇 가지 특성을 지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IT 연구소에서는 IT와 그라비어 인쇄가 접목된 IT를 통한 금속인쇄는 앞으로 IT산



▲ Design 연구소



▲ 전자조각

업 발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이자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제품 포장의 품질저하 디자인 시안 색상과 인쇄 결과물의 예측 어려움, 재현성, 균일성의 이유로 인쇄 품질관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해 짐에 따라 CMS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한 디자인 인쇄 품질의 제고, 색상 재현성 확보, 인쇄 품질의 균일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라비아 최초로 G7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였고 디자인 데이터와 프린터 색상관리, 동판커브값, 잉크

와 인쇄 작업환경관리등으로 디자이너와 인쇄현장 기술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파워 랩 시스템은 Line-art, Text, Contones의 기술적이고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게 하는 보다 강력하고 전문적인 유틸리티로써 라벨, 쉬링크, 전사지, 캔, 컵등의 수축작업이 가능하다.

한두의 작업과정은 먼저 헤리오 전자조각이다. 다이아몬드 스타일러스를 이용하여 데이터화된 이미지를 동표면에 재현하는데 인쇄시 원색 재현 능력이 우수하고 내마모성이 강하며 최고의 품질

과 정확도를 자랑하는 우수한 제품이다.

그라비아 인쇄의 약점인 잉크 gai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스트림 FX를 운영하고 있다.

동양권 서체와 세자, 라인의 끊어짐 현상을 해결하고 코팅 롤과 접착물의 잉크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원하는 품질을 구현하여 전사인쇄와 표면인쇄에 적합하다.

정밀연마는 실린더의 직진도와 진원도를 보다 정밀하게 생산 가능한 장비이다.

모든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실행하며, 하나의 터닝 및 측정장치와 2개의 연마모듈이

HANDOO



▲ Grinding System

장착되어 소프트 롤과 일반롤 모두에 적합한 커팅 및 동도금 그라비어 실린더의 연마에 최적 솔루션이다.

최첨단 설비인 부메랑 도금 공정은 자동화되어 일정한 품질 유지와 제품고급화로 최고급 제품 양산에 효과적이다.

이같이 최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한두는 동판롤 부적합 시정조치에 대한 활성화, 출하검사용 설비 투자, 선진사와의 끊임없는 품질교류,

품질대응 철저를 실천하고 있다.

한두패키지는 레이저 스트림 FX를 통한 제판방식으로 용제 잔류량을 최소화하는 저심도 롤의 사용으로 토너 양을 줄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저심도 롤을 개발하였다.

친환경 저심도 롤의 경우 고농도 잉크뿐만 아니라 일반 잉크에도 적용할 수 있어 원가절감 효과가 크며, 이를 통해 고품질 잉크 개발에 경쟁

하여 품질 좋은 잉크 개발에 기여하고 건조, 경화 등의 과정에서 환경, 전기 등 20% 이상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심도 롤의 개발과 적용 이외에도 한두는 인쇄기술을 발전시키고 환경제품, 원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 그라비어인쇄 업계와 유사한 일본의 기술을 파악하여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적용시키는 노력을 하고



▲ Surface Plating System

있지만 장치산업이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동판업계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판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의 어려움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포장 전문 전시회를 참관하며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원 사장은 “앞선 투자와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쇄업체들이 경쟁을 부추겨 가격을 낮추는 일들이 있는데 이는 품질을 낮추고 동판업체

들이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저가 제품을 요구할 경우 품질이 떨어지고 동판업체들이 개발의지를 꺾는 경우가 생겨 동판 기술 개발로 인쇄업체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오히려 그 기술들이 사장되기도 해 안타깝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기술 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원가절감으로 타개해 나가고 있다는 한두는 모든 제품의 품질 차이를 없애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인쇄업계의 제품 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한두패키지는 앞으로 세계 최고의 동판 제작 기술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함께해준 거래처에 보답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한두패키지로부터 제판업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